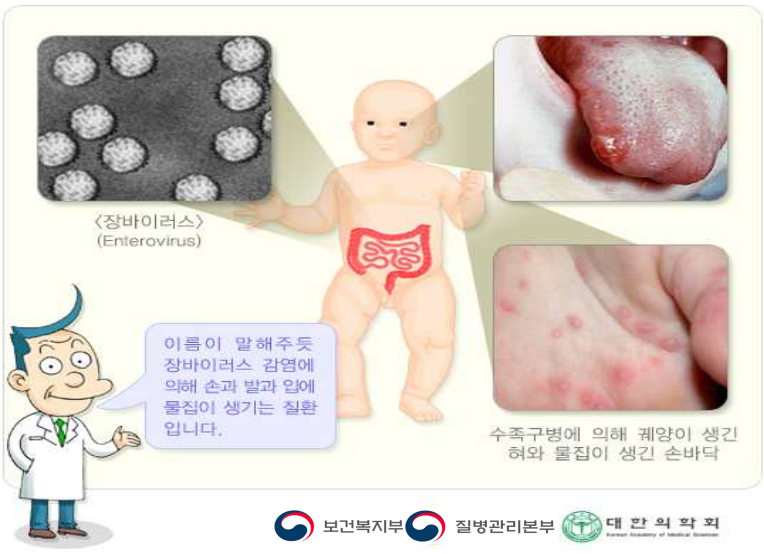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 도 자 료 4월 19일(금) 조간 (4.18.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9. 4. 18. / (총 8매)	담당부서	감염병총괄과
과 장	이 동 한	전 화	043-719-7120
담 당 자	이 윤 희		043-719-7111

수족구병 환자 발생 증가,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당부!

◇ 기온이 상승하고 실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수족구병 유행시기 돌입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올바른 손씻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4월 말부터 **수족구병 환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등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수족구병: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 분율*은 **'19년 13주**(3.24.~3.30.) **1.8명**(외래환자 1,000명당), **14주**(3.31.~4.6.) **2.4명, 15주**(4.7.~4.13.) **2.5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기온 상승과 실외활동의 증가로 **환자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자수 / 전체 외래환자수×1,000

** 15주 통계는 변동가능한 잠정통계로, 4.18.(목) 18시 이후 확정 통계 확인가능

***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확인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탈 (http://www.cdc.go.kr/npt) → 소식지 → 감염병표본감시 주간소식지(매주 목요일 18시 이후)

○ **수족구병 환자**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수건, 장난감, 집기 등)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되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을 씻고, 장난감 등 집기 소독 관리에**(붙임 3 참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아울러, 수족구병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 특히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를 하는 등 **증상 발생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발열과 함께 손,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등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등원 및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수족구병 예방 수칙 >

◇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올바른 기침예절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 하기(붙임 3 참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하기(발병후 1주일)

<붙임> 1. 수족구병 개요
2. 수족구병 발생현황
3. 수족구병 발생 시 소독방법
4. 수족구병 Q&A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붙임 1 수족구병 개요

병 명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
정 의	▫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질병 분류	▫ 법정감염병: 지정 감염병 ▫ 질병코드: ICD-10 B08.4
병원체	▫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이 주원인 ▫ 그 외에 엔테로바이러스 71형, 콕사키바이러스 A5, A6, A7, A9, A10형, B2, B5형 등도 원인이 됨
전파경로	▫ 직접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 ▫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수영장에서도 전파 가능 ▫ 전파의 위험이 높은 장소 : 가정(감염자가 있는 경우), 보육시설, 놀이터, 병원, 여름캠프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
잠복기	▫ 3-7일
증 상	▫ 전신증상 : 발열, 식욕감소, 무력감 ▫ 위장증상 : 설사, 구토 ▫ 발진/수포(물집): 주로 입, 손, 발, 영유아의 경우 기저귀가 닿은 부위
진 단	▫ 환자 검체(대변, 뇌척수액, 인후도찰물, 비강세척액 등)에서 특이유전자(VP1) 검출
치 료	▫ 해열 진통제로 증상을 완화, 탈수로 인한 수분보충 등 대증요법 * 아스피린은 사용하지 말 것
치사율	▫ 일반적으로 0.1% 미만 ▫ 엔테로바이러스 71형으로 뇌간 뇌척수염,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높음
관 리	▫ 환자관리 :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 ▫ 접촉자관리 : 발병을 감시하며, 발병 시 등원 및 외출 자제
예 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올바른 기침예절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 하기(붙임 3 참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발병후 1주일)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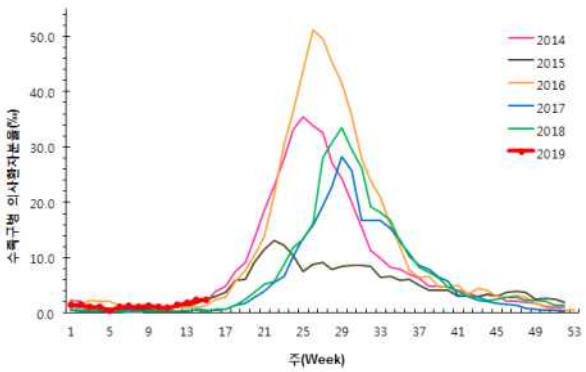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붙임 2 수족구병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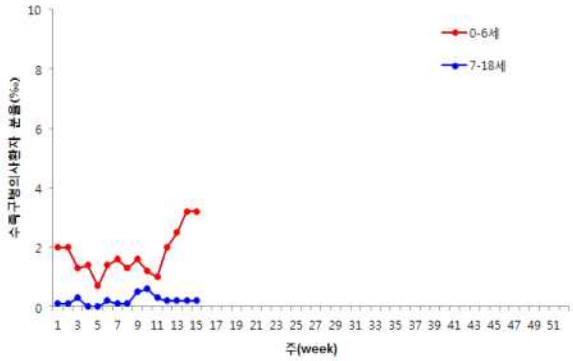
□ **(임상 감시)** 수족구병 의사환자수*는 2019년 13주(3.24.~3.30.) 1.8명(외래환자 1,000명당), 14주(3.31.~4.6.) 2.4명, 15주(4.7.~4.13.) 2.5명으로 증가

*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자수 / 전체 외래환자 수 x 1,000

○ 제15주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수는 0-6세군에서 3.2명, 7-18세군은 0.2명이었음



<주별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

[단위: 천분율(‰)]

주(Week)	7	8	9	10	11	12	13	14	15
전체	1.3	1.1	1.4	1.1	0.9	1.5	1.8	2.4	2.5
0-6세	1.6	1.3	1.6	1.2	1.0	2.0	2.5	3.2	3.2
7-18세	0.1	0.1	0.5	0.6	0.3	0.2	0.2	0.2	0.2

* 2013년 36주차부터 개편된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신고 된 자료임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붙임 3 수족구병 발생 시 소독방법

□ 환자가 만진 물건 등은 소독액(염소 0.5%(5,000ppm))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냄

□ 소독시 주의사항

○ 장갑,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 후 소독 실시

○ 소독을 할 때는 창문을 연 상태(외부 공기와 접촉된 상태)에서 실시하고 소독 후에도 충분히 환기 실시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

○ 소독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 소독액 만드는 방법

염소 0.5% (5,000ppm)
① 빈 생수통 500ml에 종이컵1/3양의 염소계 표백제를(4%기준) 붓습니다.
② 물을 더해 500ml를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흔들어 섞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붙임 4 수족구병 Q&A

Q1. 수족구병은 어떤 병인가요?

○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 입 안, 손, 발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 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 주원인이고, 엔테로바이러스 71 (EV71), 콕사키바이러스 A5, A6, A7, A9, A10, B2, B5 등도 원인이 됩니다.

○ 대부분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생기며 봄철에 증가하여 여름에 유행 합니다.

Q2.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수족구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수족구병의 증상은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및 피로감(권태감) 등입니다.

○ 발열 1~2일 후에, 입 안의 볼 안쪽, 잇몸 및 혀에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 이 같은 반점은 수포 또는 궤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손, 발 및 엉덩이에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끔 팔과 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에는 융기 또는 편평형 붉은 반점과 수포도 포함됩니다.

○ 수족구병의 증상은 보통 경미하며 대개 7~10일 내에 저절로 없어지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막염, 뇌염 등 중추 신경계 합병증 외에 심근염, 신경원성 폐부종, 급성 이완성 마비 등)

○ 특히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어린영아의 경우,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감염된 경우 뇌간 뇌수막염, 신경성 폐부종, 폐출혈, 쇼크 등 합병증의 발생이 더 높습니다.

Q3. 어떻게 감염이 되나요?

○ 수족구병 환자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수건, 장난감, 집기 등)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됩니다.

○ 발병 첫주에 가장 전염성이 크고, 잠복기는 약 3~7일입니다.

Q4. 수족구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 특히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를 하는 등 증상 발생시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진단받았을 때는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녀들이 수족구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보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Q5.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 현재까지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수족구병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를 간 후 또는 코와 목의 분비물, 대변 또는 물집의 진물을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르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 장난감과 물건의 표면은 먼저 비누와 물로 세척한 후 소독제로 닦아야 합니다.

○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침예절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족구병에 걸린 아동은 열이 내리고 입의 물집이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난 어른의 경우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질병정보 공급원 감염병이 예상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